

# 2026년 4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 PART 1 관광통계

### □ '26년 3~4월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5월 전망

- 홍콩 최대 성수기 중 하나인 부활절 및 청명절 연휴(4.3.~4.8.)로 수요 증가, 연휴 이후 전년도 부활절 연휴(4.18.~4.21.)의 기저효과 및 유류세 급등(전쟁 전 대비 174% 상승) 영향 본격화로 해외여행 수요 둔화
- 유류세가 단체 패키지 상품 가격 부담을 가중하면서 5월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2월 '19년 동기 대비 97.3%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b>37,710</b>	<b>47,197</b>											84,907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2월 '19년 동기 대비 73.9%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b>129,083</b>	<b>96,260</b>											225,343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t.hktb.com/>

###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2월 '19년 동기 대비 31.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b>1,020,038</b>	<b>942,176</b>											19,624,214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t.hktb.com/>

##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2월 '19년 동기 대비 95.7%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b>807,584</b>	<b>943,368</b>											1,750,952
2025	<b>987,169</b>	<b>730,359</b>	<b>871,688</b>	<b>1,176,616</b>	<b>936,205</b>	<b>950,682</b>	<b>1,054,326</b>	<b>1,081,042</b>	<b>790,245</b>	<b>959,946</b>	<b>919,632</b>	<b>1,231,000</b>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t.hktb.com/>

##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2월 '19년 동기 대비 80.4%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8.36%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b>4811,700</b>	<b>5,141,714</b>											9,953,414
2025	<b>4,742,066</b>	<b>3,667,671</b>	<b>3,818,512</b>	<b>3,847,934</b>	<b>4,078,938</b>	<b>3,480,979</b>	<b>4,390,514</b>	<b>5,152,837</b>	<b>3,292,197</b>	<b>4,588,515</b>	<b>4,189,272</b>	<b>4,645,397</b>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t.hktb.com/>

## □ 경쟁국 방문 현황('26.1~2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1.2%, 대만 -6.2%, 태국 -14.6%, 싱가포르 -11.8%

○ '19년 대비 일본 30.1% 증가/ 대만 79.1%, 태국 68.1%, 싱가포르 60.2%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b>200,048</b>	<b>233,900</b>										433,948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49,600	2,290,748
대만	'26	<b>76,023</b>	<b>81,833</b>										157,856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76,296	1,598,223
태국	'26	<b>40,346</b>	<b>55,659</b>										96,005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5,732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2,532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92,410	1,045,198
싱가포르	'26	<b>19,420</b>	<b>22,100</b>										41,52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21,36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23,49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4,946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홍콩,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단순 소지'도 전면 금지**

- 홍콩 정부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기존의 전자담배 판매·제조 금지를 넘어, 공공장소 내 '단순 소지(Possession)'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담배 조례 개정안을 시행함
- 이번 규제는 관광객 등 모든 외국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며, 입국 시 개인 수하물에 전자담배(기기, 액상, 가열식 스틱 포함)가 포함될 경우 세관 단계부터 압수 및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지 수량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소량 소지(스틱 100개 또는 액상 50ml 이하): 적발 시 최고 3,000 홍콩 달러(한화 약 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 대량 소지(위 기준 초과): 상업적 용도로 간주되어 최고 50,000 홍콩달러(한화 약 880만 원)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홍콩 정부는 현재 9.5%인 흡연율(2023년 기준)을 2025년까지 7.8%로 낮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에 유입되는 '관문 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인바운드 동향>**

- **2026년 1분기 홍콩 방문객 현황: 전년 대비 17% 성장한 1,431만 명 기록**
  - 홍콩관광청(HKTB)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방문객은 총 1,4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이 중 중국 본토 방문객은 1,108만 명(20% 증가)을 기록함
  - 이러한 성장은 설 연휴 기간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과 홍콩 전역에서 개최된 다양한 메가 이벤트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3월 한 달 간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35만 명이 방문함
  - 3월 방문객 중 비본토(국제) 관광객 비중은 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아트 바젤(Art Basel), 아트 센트럴(Art Central), 콤플렉스콘(ComplexCon) 등 세계적인 문화 예술 행사가 국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 결과로 분석됨
  - 항공 노선 공급 확대와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장거리 노선 방문객 또한 전년 대비 19% 증가한 99만 명을 기록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
  - 다만 홍콩관광청은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가 관광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자원을 유연하게 투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밝힘
  
- **홍콩 관광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방문객 수'에서 '소비 지출' 중심으로**
  - 홍콩 이과대학(PolyU) 연구 및 주요 경제 언론(SCMP) 분석 결과, 단순 방문객 수 회복보다 관광객의 질적 소비 패턴 변화가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 PolyU 연구에 따르면, 홍콩 방문객 중 약 70%는 숙박 여행객이었으며, 이들은 쇼핑, 식사, 숙박 및 체험 활동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고, 평균 지출액은 9,300홍콩달러(한화 약 175만 원)를 넘는 반면, 당일 방문객의

80% 이상은 광둥-마카오 대만구에서 왔으며, 방문 횟수는 더 많지만 평균 지출액은 약 2,900홍콩달러(한화 약 54만 원)로 1/3 수준임.

- 홍콩 관광 업계와 전문가들은 방문객 숫자라는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특히 저가 단체 관광객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타깃층 유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단순한 쇼핑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 예술 행사, 미식 체험, 지역 특화 콘텐츠 등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메가 이벤트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숙박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등 콘텐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홍콩관광청, 지난 2년간 글로벌 인플루언서 1,730명 초청 및 홍보 강화

- 홍콩관광청(HKTB)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전 세계에서 총 1,730명의 인플루언서를 홍콩으로 초청했으며, 이들의 총 팔로워 수는 16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초청된 인플루언서들은 각자의 본국 시장과 타깃에 맞춘 개별 맞춤형 테마 일정을 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홍콩의 자연, 미식, 문화 예술 등 다채로운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림
- 대표적인 사례로 틱톡 최다 팔로워를 보유한 '카비 라메(Khaby Lame)'가 2024년 11월 홍콩을 방문하여 타이항 화룡쇼, 타이오 어촌 마을, 삼수이포 다이파이동 등을 체험하며 홍콩의 로컬 감성을 공유함
- 홍콩 문화체육관광국에 따르면, 관광청은 2026-27 회계연도에도 약 13억 2천만 홍콩달러(약 2,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인플루언서 협업 및 테마 콘텐츠 개발에 투입할 예정임
- 특히 중국 본토 시장을 겨냥해 샤오홍슈, 도우인(틱톡), 웨이보 등 주요 플랫폼의 인플루언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정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홍콩, '스카이스티 마리나' 프로젝트 본격화를 통해 고부가 관광인 요트 경제 활성화 추진**

- 홍콩 공항관리국(AAHK)은 란타우섬 공항 인근 '스카이스티(SKYCITY)' 부지에 요트 정박 시설과 상업 시설을 결합한 '스카이스티 마리나(SkyCity Marin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함
- 이번 프로젝트는 약 600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정박소와 수리 시설, 클럽하우스를 갖출 예정이며, 인근 11 SKIES(복합 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와 연계해 고소득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요트 경제'를 육성하고, 홍콩을 아시아의 핵심 마리나 허브로 격상시켜 단순히 경유하는 곳이 아닌 고부가가치 관광 소비가 일어나는 목적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임
- 특히 그레이트베이 에어리어(GBA) 지역의 자산가들을 타깃으로 한 '요트 자유행(Yacht Free Travel)' 제도를 강화하여, 본토 요트들이 편리하게 홍콩에 정박하고 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을 병행할 계획임
-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공항, 강주아오 대교, 대규모 쇼핑몰과 결합하여 홍콩 서부 지역의 관광 지형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홍콩 경제 회복에 기여할 질적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노동절 골든위크 홍콩 인바운드 관광 시장 전망 및 관광 질서 확립 대책**

- 이번 노동절 골든위크(5월 1일~5일) 기간 중 홍콩의 호텔 객실 점유율이 해당 기간 동안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약 98만 명의 중국 본토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임.
- 전문가들은 최근 중일 관계의 긴장 상황이 홍콩 관광업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 대신 홍콩을 선택하는 본토 여행객의 증가가 이번 골든위크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함
- 홍콩 당국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주요 국경 검문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매 쇼핑' 및 '사기성 저가 패키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함
- 특히 세관과 경찰은 관광지 주변의 감찰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근접하고, 방문객들이 홍콩의 문화 예술과 미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홍콩관광청은 이번 기간 방문객들이 단순 관광을 넘어 홍콩의 매력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홍보를 병행하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 〈아웃바운드 동향〉

### □ 홍콩 여권 소지자 대상 스리랑카 도착 비자 시행: 사전 ETA 승인 조건

- 홍콩정부는 주중스리랑카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홍콩 여권 소지자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할 경우 스리랑카 도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여행객은 출국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스리랑카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도착 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한 입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음
-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은 이번 조치가 홍콩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두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관광, 문화 및 경제적 교류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스리랑카의 포함으로 홍콩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입국 또는 도착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총 175개로 확대됨

### □ 홍콩인들에게 선전(Shenzhen)이 단순 가성비를 넘은 핫플레이스로 부상

- 홍콩인들의 새로운 주말 나들이 트렌드, 선전 '문화 역직구' 열풍
  - 과거 저렴한 물가를 찾아 선전을 방문하던 것과 달리, 최근 홍콩인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을 갖춘 선전의 새로운 문화 예술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음
  - 특히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카페, 대형 서점, 현대적인 전시관 등이 밀집한 문화 지구들이 홍콩의 좁고 복잡한 도심에 지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임

- 압도적인 공간감과 가성비, 홍콩에서는 누릴 수 없는 여유 제공
  - 선전의 새로운 문화 거점들은 홍콩 대비 훨씬 넓은 부지를 활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커피 한 잔 가격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와 세련된 공간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적 가성비'가 핵심 요인임
  - 홍콩의 비싼 임대료로 인해 생겨나기 힘든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들이 선전에 속속 등장하면서, 홍콩인들에게는 단순한 쇼핑 그 이상의 심리적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음
- SNS 인증 문화와 독특한 스타일의 결합
  -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기 좋은 독특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인테리어가 홍콩인들의 방문 욕구를 자극하고 있음
  - 특히 창의적인 예술 구역이나 리모델링된 산업 유산 공간 등은 홍콩 내 기존 상업 시설과는 차별화된 세련미와 개성을 갖추고 있어, MZ세대를 중심으로 선전 방문이 하나의 '힙한'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음
- 편리한 교통망 확충이 가져온 '일일 생활권' 가속화
  - 고속철도와 지하철 연결망 등 국경 간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홍콩 도심에서 선전의 주요 문화 지구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실질적인 배경이 됨
  - 홍콩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홍콩 내부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도시 간의 경제·문화적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함

#### □ 홍콩인들, 고속철과 '유류세 동결'로 인해 중국 본토 노선 선호

-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홍콩 항공사들이 유류세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심화됨
  -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홍콩익스프레스(HK Express), 홍콩항공(Hong Kong Airlines) 모두 유류할증료가 단거리 기존 142달러 → 389달러, 장거리 기존 569달러 → 1,560달러(한화 약 27만 원)로 폭등함
  - 그레이터베이항공(GBA)은 중국 외 지역 노선 유류세를 34% 인상(몰디브행 추가비용 725달러)했으며, 수익성 악화로 5~9월간 방콕 노선 운항을 중단함

- 일반 국제선 비용이 폭등한 것과 달리, 중국 본토행 항공편은 유류세를 인상하지 않거나 동결하여 본토 여행을 선택하는 핵심 이유가 되고 있음
  - 캐세이퍼시픽, 홍콩익스프레스, 홍콩항공 모두 중국 본토 노선 유류세 그대로 유지(165~190달러)
- 이러한 유류세 차별화 정책은 항공권 총액 격차를 벌려 가성비를 중시하는 홍콩 여행객들이 해외 대신 중국 본토 노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
- 항공 비용 상승의 대안으로 홍콩 내 26km(16마일) 구간의 고속철도 (XRL)를 이용해 본토로 향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음
  - 홍콩 서구룡역 출발 고속철도는 중국 본토 내 110개 목적지와 직접 연결 되어 환승 없이 편리하며 유류할증료 부담이 없음
  - 요금 측면에서 선전 왕복 약 150~160홍콩달러, 광저우 왕복 약 500홍콩 달러 수준으로 방문이 가능하여 항공권 대비 크게 저렴
- 항공권 가격과 유류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가 저렴하고 치안이 보장된 중국 본토 도시들이 홍콩 아웃바운드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함
- 여행객들은 고속철도와 저렴한 본토 항공편을 이용해 유류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본토의 대형 쇼핑몰과 문화 예술 지구를 즐기는 '스마트 소비' 패턴을 보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 중심의 여행지 변화가 홍콩 항공업계의 노선 재편과 여행 소비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분석함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206/01.htm?fontSize=1>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kr/index.html>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